

사상의학에서의 설사에 관한 고찰

송은영 · 채광민* · 이준희* · 이의주* · 고병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f the Diarrhea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un-Young Song, Kwang-Min Chai[†], Jun-Hee Lee^{*}, Eui-Ju Lee^{*}, Byung-Hee Koh^{*}

Graduate school of Clinical Kor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and Sciences(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propose the guideline of the diarrhea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thods

1) Literature search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rescriptions stated the diarrhea as a main and accessory symptoms to be treated in 『Donguisangshinyun』, 『Donguisusebowon Sasang Chobongwon』, 『Donguisusebowon Gabobon』, 『Donguisusebowon Sinchukbon』, 『Dongmuyugo』

2) Clinical paper search

- (1) The foreign papers were searched by using the search word with 'Sasang AND Diarrhea' in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 and The Cochrane Library(<http://www.thecochranelibrary.com>)
- (2) The domestic papers were searched by using the search word with 'Soeumin AND Diarrhea', 'Soyangin AND Diarrhea', 'Taeummin AND Diarrhea', 'Taeyangin AND Diarrhea', 'Sasang AND Diarrhea' in NDSL (<http://www.ndsl.kr>), KISS(<http://kiss.kstudy.com>), Oasis(<http://oasis.kiom.re.kr>), RISS(<http://www.riss.kr>)
- (3) The extracted factors were the evaluations on the mainly complained symptom, adopted four constitutional therapy and efficacy.

Results & Conclusions

The guidelines for treating the diarrhea in the Four Constitutional Medicine are as follows.

- 1) It is to categorize the constitution.
- 2) The diarrhea of taeummin is prescribed with 'A Series of Taeumjowi-tang, Galgeunhaegi-tang, Cheongsimyeonja-tang, Sahyang-san, etc.' by classifying into cold, fever, consumption and addiction.
- 3) The diarrhea of soyangin is regarded as an internal disease and it is prescribed with 'Baekhaobuja-tang, Baekhaobujaijung-tang, etc.' by classifying taeum symptom and so-yin symptom.
- 4) The diarrhea of soeumin is Mangeum-disease and 'Jeoryeongchajeonja-tang, Hyeongbangsabaek-san, Hwalseokgosam-tang, Hyeongbanggihwang-tang, etc.' is prescribed depending on the complication.

Key Words: Diarrhe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 緒論

사상의학에서는 학문의 특성 상 체질별 특성을 중심으로 병증, 처방 등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사상의학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체질별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 이외에 사상인의 完實無病에서 언급되어 있는 소화¹, 소변², 대변^{3,4}, 땀^{2,5}의 상태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이 있고, 부증⁶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이 있었지만, 질환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논문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질환별로 사상의학에 대한 내용을 고찰한다면 사상의학적 실제적인 치료를 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질환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설사 증상에 관해 고찰해 보고, 사상의학적 설사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문헌연구

- 1) 『東醫四象新編』,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東武遺稿』(海東, 장서각)에 설사를 주치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처방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東醫壽世保元』 원문은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임상편람』⁷을 참고 하였다.

2. 임상 논문검색

임상 논문 검색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출간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검색어는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는 (Sasang AND Diarrhea)로 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소음

인 AND 설사), (소양인 AND 설사), (태음인 AND 설사), (태양인 AND 설사), (사상 AND 설사)로 검색하였다.

해외 데이터 베이스는 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와 The Cochrane Library(<http://www.thecochranelibrary.com>) 를 사용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http://www.ndsl.kr>),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오아시스(<http://oasis.kiom.re.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http://www.riss.kr>)를 사용하였다.

논문 포함기준은 해당 논문의 사용처방이 사상의학 처방을 사용한 논문, 주증, 부증 중에 설사가 있으며, 치료에 대한 평가가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제 기준은 검색 시 중복된 논문, 문헌 고찰과 실험 연구를 제외하였으며, 원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논문 선택과정은 검색어로 검색 후, 초록을 검토하여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논문은 배제하고, 포함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 전문을 읽어본 후 최종적으로 살펴볼 임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에서 추출한 항목은 주소증, 사용한 사상처방,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III. 研究結果

1. 문헌검색

1)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用藥彙分外篇」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用藥彙分外篇」에서는 각 체질별로 病因 및 원인 장부에 따른 설사 처방을 제시하였다. 病因으로는 滯, 虛를 제시하였고, 원인 장부로는 腎을 제시하여 처방을 나타내었다. 滯로 인한 泄瀉 처방에서만 太陽人 처방이 보이며, 松葉과 蕎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滯로 인한 설사 처방으로 少陽人은 牧丹皮地黃湯, 贊化丹을, 太陰人은 太陰調胃湯, 清心蓮子湯을, 少陰

Table 1.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uisasangshinpyun』 『Yongyakhwibunoepyeon』.

The name of a disease	Taeyangin	Soyangin	Taeceumin	Soeumin
[吐瀉]暑		猪苓車前子湯	熱多寒少湯 中毒 麝香散	十二味寬中湯 三味麥萸湯
滯泄	松葉 取汁 頓服 蕎麥 作飯 頓食	牡丹皮地黃湯 贊化丹	太陰調胃湯 清心蓮子湯	香砂養胃湯 藿香正氣散 白何烏附子理中湯
暑泄		朱砂益元散 猪苓車前子湯	葛根解肌湯 李氏調胃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虛泄		牡丹皮地黃湯 猪苓車前子湯	太陰調胃湯 清心蓮子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人蔘附子理中湯
腎泄		木通無憂湯	腎氣調胃湯 清心蓮子湯	人蔘附子理中湯 或 君製何烏 倍 白朮

Table 2.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uisasangshinpyun』 『Donguisasangshinpyunjebang』.

The Prescriptions	The Chief Virtue	The Composition of Prescriptions
Taeceumin		
固氣調胃湯	泄瀉	薏苡仁 乾栗 各三錢 蘿菥子二錢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吉更 麻黃 各一錢 加 楞根皮 二錢
葛根解肌湯	治陽毒面赤斑斑如線紋咽喉痛唾膿血 微惡寒發熱日疼鼻乾潮汗閉澀消渴狂譫身熱腹痛自利長感瘟疫寒厥五日無汗者服	葛根 三錢 升麻 二錢 黃芩 杏仁 各一錢半 酸棗仁炒 吉更 大黃 白芷 各一錢
清心蓮子湯	治虛勞夢泄無度腹痛泄瀉舌卷中風食滯胸腹痛	蓮肉 山藥 各二錢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蒲 酸棗仁 龍眼肉 栝子仁 黃芩 蘿卜子 各二錢 甘菊 三分
補肺元湯	治小兒泄瀉十餘次必發慢驚以此豫防	麥門冬 三錢 桔梗 二錢 五味子 一錢
麝香散	治中毒吐瀉 急腹痛	麝香 各五分 溫水或溫酒調下
清心山藥湯	治 虛勞夢泄 無腹痛泄瀉 舌卷不語 中風	山藥 三錢 遠志 二錢 天門冬 麥門冬 蓮子肉 栝子仁 酸棗仁 龍肉 桔梗 黃芩 石菖蒲 各一錢 菊花 五分
麥門冬湯	治 傷寒半表裏 及表熱泄瀉	麥門冬 三錢 葛根 桔梗 薏苡仁 各二錢 黃芩 蘿卜子 五味子 各一錢
薏苡仁調胃湯	治 大泄無度	薏苡仁 一兩 乾栗 蘿卜子 各二錢 麥門冬 五味子 石菖蒲 桔梗 麻黃 各一錢
Soeumin		
三白理中湯	治內傷泄瀉	加大蒜二錢山查一錢
香砂理中湯	治內傷泄瀉服滿口吐食滯黃疸	人蔘 白朮 乾薑 白芍藥 各二錢 砂仁 棗二枚 藿香 陣皮 甘草 灸 各一錢
獨參良朋湯	治小兒泄瀉及慢驚風	人蔘 一兩 生薑 二錢 當歸 官桂 陳皮 各一錢 棗二枚

人은 香砂養胃湯, 藿香正氣散, 白何烏附子理中湯을 사용하였다. 暑로 인한 설사에 少陽人은 猪苓車前子湯, 朱砂益元散을, 太陰人은 熱多寒少湯, 葛根解肌湯, 李氏調胃湯을, 少陰人은 十二味寬中湯, 三味麥萸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을 사용하였다. 虛로 인한 설사에 少陽人은 牡丹皮地黃湯, 猪苓車前子湯을, 太陰人은 太陰調胃湯, 清心蓮子湯을, 少陰人은 白何烏理

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人蔘附子理中湯을 사용하였다. 腎泄에 少陽人은 木通無憂湯을, 太陰人은 腎氣調胃湯, 清心蓮子湯을, 少陰人은 人蔘附子理中湯을 사용하였다 (Table 1).

2)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新編劑方」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新編劑方」에 제시된 제질별 설사 처방을 살펴보면 太陰人은 固氣

Table. 3.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uisusebowon Sasang Chobongwon』

The Prescriptions	The Chief Virtue	The Composition of Prescriptions
五苓散	治運氣 熱結膀胱 夏月腹痛泄瀉	澤瀉 三錢 赤茯苓 猪苓 各二錢 滑石 柴胡 各一錢
清升葛根湯	治便滑	葛根 三錢 升麻 二錢 麥門冬 桔梗 五味子 天門冬 黃芩 白芷 酸棗仁 杏仁 蘗本 各一錢
清心山藥湯	治虛勞 夢泄 腹痛 泄瀉 舌卷不語中風	山藥三錢 遠志二錢 天門冬 麥門冬 蓮子 柏子仁 酸棗仁 元肉 桔梗 黃芩 石菖蒲 各一錢 甘菊五分

Table. 4.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uisusebowon Gabobon』

The symptom of a disease and the Mentioned part of the contents	A relative passages and prescriptions
Soeumin	
太陰證	7-50 臍腹之證 當觀於大便也. 下利黃水則太陰證也
	7-56 下利清水者 雖日數十行 口中必不燥乾而冷氣外解也 當用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以助溫暖 好也
少陰證	7-50 ...下利青水則少陰證也.
	7-56 ...下利清水者 雖日一二行 口中必益燥乾而冷氣內侵也 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以制陰寒 可也
其他	6-57 ...內觸泄瀉之病 三日則必用 白何首烏理中湯 香砂理中湯 三貼服翌日又二貼服 永爲 常法可也
泛論	獨參良朋湯 治小兒泄瀉慢驚風 (人參 一兩 生薑 二錢 當歸 桂皮 陳皮 各一錢 大棗 二枚)
Soyangin	
腹痛泄瀉證	9-26 李子建傷寒十勸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暖藥 又曰 傷寒自利 當看陰陽證 不可例服溫暖及止瀉藥
	9-27 朱震亨曰 傷寒陽證 身熱脈數煩渴引飲大便自利 宜柴苓湯 今考更定 少陽人病 微腹痛大滑泄當二三度而止者 其病必快解也而 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 或 但痛不泄者則 膀胱內守之真陰虛弱 熱氣相迫之故也. 傷寒病 有此證者 始發已爲 重險證 不可不急治 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麥湯 攪括固柴藥細藥柴 此證 腹痛而有泄瀉者 重證中輕證猶在也. 腹痛而無泄瀉者 重證中其證又險跛也. 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麥湯加石膏一錢.
	少陽人病 泄瀉連三四日後 大便仍閉不通者 多成危證 最不可等閒任置也. 泄瀉後大便仍閉者 亦當用 柴胡四苓散 八味苦麥湯加石膏.
Taeceumin	
長感病	12-22 [Onbyeong] 今考更定 已上諸證 (The Symptoms about the disease model of Onbyeong) 目疼鼻乾增寒壯熱燥澀 者 當用 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頰赤腫者 當用 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者 當用 桔梗生脈散.
	12-23 論曰 體熱腹滿自利之證 外感內觸表裏俱病最爲 危證也 當用 桔梗生脈散 或樗根白皮一錢 麝香三分調下 連三四服急救之.
	其他
其他	13-1 論曰 太陰人一證 有腹痛自利病 當用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調胃湯, 葛根解肌湯, 清心蓮子湯, 補肺元湯, 麝香散, 清心蓮子湯, 麥門冬湯, 薏苡仁調胃湯 총 8개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少陽人은 설사 처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少陰人은 三白理中湯, 香砂理中湯, 獨參良朋湯 총 3처방을 제시하였다 (Table 2).

3)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에서 두통 관련 처방으로 五苓散, 清升葛根湯, 清心山藥湯을 제시하였다 (Table 3).

Table. 5.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uisusebowon Sinchukbon』

The nature of a disease and the Mentioned part of the contents		A relative passages and prescriptions
Soecumin		
太陰證	6-36 陰證 口中和 而有腹痛泄瀉者 太陰病也	
	6-10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6-36 陰證 ... 口中不和 而有腹痛泄瀉者 少陰病也	
	6-10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Soyangin		
亡陰證	9-22 盤龍山老人 論曰 少陽人 身熱頭痛泄瀉 當用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	
其他	소양인 신정방 豬苓車前子湯 右方 治頭腹痛 有泄瀉者 宜用 (茯苓 澤瀉 各二錢 豬 苓 車前子 各一錢五分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荊防地黃湯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Taecumin		
溫病	13-12 論曰 右諸證(Onbyung) 增寒壯熱燥澀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當用 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表寒證泄瀉, 表熱證泄瀉 13-30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 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 葛根蘿菖子湯	
小兒泄瀉	13-34 太陰人小兒 有泄瀉十餘次無度者 必發慢驚風 宜用 補肺元湯 豫備慢風	

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설사 증상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少陰人은 太陰證, 少陰證, 기타 외측편에서의 내측편에 대한 언급 부분, 범론에 나타나 있으며, 太陰證에는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을, 少陰證은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을 사용하였고, 기타 부분에서는 白何烏理中湯과 香砂理中湯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범론에서 소아설사에 獨參良朋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少陽人은 腹痛泄瀉證에서 설사가 언급되어 있으며 사용처방으로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을 제시하였다.

太陰人은 長感病에서 설사가 언급되어 있으며, 桔梗生脈散을 제시하였다. 기타 裏病篇에서 太陰人 腹痛自利證에 桔梗生脈散, 黃栗櫟根皮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Table 4).

5)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설사가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少陰人에서는 太陰證, 少陰證에 나타나고, 太陰證에 대한 처방으로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제시하였고, 少陰證 처방으로 官桂附子理中湯을 제시하였다.

少陽人에서는 亡陰證에 나타나며 제시 처방은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이었다. 少陽人 新定方에서는 豬苓車前子湯과 荊防地黃湯의 주지증을 설사라고 제시하였다.

太陰人에서는 溫病에 설사가 나타나 있으며, 溫病에서 熱이 승할 경우 葛根解肌湯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寒이 승할 경우엔 太陰調胃湯에 升麻, 黃芩을 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表寒證 설사에 太陰調胃湯을 表熱證 설사에 葛根蘿菖子湯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太陰人 소아에게는 補肺元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Table 5).

6) 『東武遺稿』

『東武遺稿』에서 太陰人 처방으로 固氣調胃

Table. 6. The Prescriptions on Diarrhea in 『Dongmuyugo』

Prescriptions	The Chief Virtue
Taeumin	
固氣調胃湯	固氣調胃湯可治, 太陰男女泄瀉可, 上一太陰調胃湯, 加小白皮二錢名
定神瀉肝湯	定神瀉肝湯何治, 虛勞夢泄便秘, 一七清肺瀉肝湯, 除去大黃加龍骨, 一加一減造化妙, 嘔吐煩熱面黃赤, 指黑掌浮肢無力, 本方但加大黃用, 便秘尿多燥渴証, 本方更加古與軍, 此方性能也不偏, 煩燥泄瀉亦可用.
薏苡仁調胃湯	大泄无度試可用, 薏苡一兩栗糲二, 麥味菖桔麻各一.
麝香散	吐瀉腹痛麝香散, 只是麝香三五分, 爲散溫水調下可, 溫酒調服亦無妨.
麥門冬湯	麥門冬湯何治方, 傷寒表裏表熱瀉, 麥三葛桔苈各二, 芩糲五味皆各一
Soyangin	
猪苓車前子湯	猪苓車前湯何治, 亡陰身熱泄瀉病, 澤苓二猪車錢半, 知石兩活荆防一
滑石苦參湯	滑石苦參湯何治, 腹痛極甚无泄瀉, 澤瀉滑苦各爲二, 川連栝羌又有一
荆防地黃湯	荆防地黃湯何治, 亡陰泄瀉與浮腫, 熟茱茯澤皆各二, 兩活荆防車又一
Soeumin	
香砂理中湯	香砂理中湯何治, 內傷泄瀉腹滿用, 參朮乾芍均皆二, 砂藿陳甘一薑棗
獨參良朋湯	獨參良朋湯何治, 小兒泄瀉與慢驚, 人參獨兩生薑二, 歸桂陳一又有棗.
香砂理中湯	香砂理中湯何治, 內傷泄瀉腹滿用, 參朮乾芍均皆二, 砂藿陳甘一薑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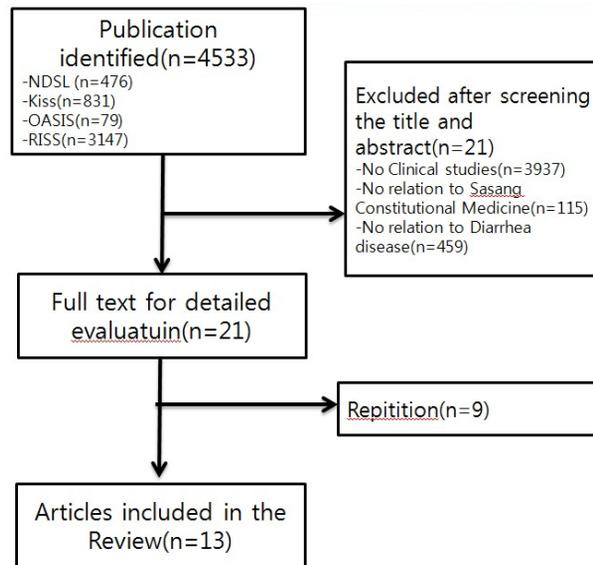


Figure. 1. Flowchart of the search process.

湯, 定神瀉肝湯, 薏苡仁調胃湯, 麝香散, 麥門冬湯 총 5개 처방을 제시하였고, 少陽人 처방으로 猪苓車前子湯, 滑石苦參湯, 荆防地黃湯을 제시하였고, 少陰人 처방으로 香砂理中湯, 獨參良朋湯, 香砂理中湯 총 3개의 처방이 제시되었다.

『東武遺稿』에서의 설사 처방은 少陰人, 少陽人은 이전에 모두 언급된 처방이었고, 太陰人에서는 기존 판본에서 주치증을 설사라 직접 언급하지 않았

던 定神瀉肝湯과 麥門冬湯을 설사처방으로 제시하였다 (Table 6).

3. 임상논문검색

논문을 검색한 결과 국외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0건,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총 4533개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에서는 476건, 한국학술정보에서는 831건, 오아시스에서는 79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3147건 이었다. 이 중 제목과 초록을 살펴서 임상논문이 아닌 논문 3937건, 사상체질과 관련 없는 논문 115건, 설사질환과 관련 없는 논문 459건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21건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 전문을 살펴보았다. 이 중 원문이 중복된 논문 9개를 제외한 13건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Figure 1). 검색된 논문 13편을 살펴보면 太陰人은 2건, 少陰人은 1건, 少陽人은 3건이 있었다.

대상 환자군은 태음인은 GERD와 IBS 환자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少陰人은 화병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少陽人은 과민성장증후군 및 亡陰證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한 처방은 太陰人은 胃脘寒證 범주의 調胃升清湯, 肝燥熱證 범주의 熱多寒少湯이 쓰였다. 少陰人은 太陰證 범주의 藿香正氣散, 十二味寬中湯이 쓰였고, 香附子八物湯도 사용하였다. 少陽人은 亡陰證 범주의 荊防地黃湯이 쓰였다.

치료에 대한 평가는 Quality of Life(QOL), 대변 굳기의 변화, 배변 횟수, 후중감 등이 있었고, 증상에 대한 서술적 기술 등이 있었으며, 대변 굳기의 변화, 배변 횟수에 대한 지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신 등⁸의 논문에서는 GERD와 IBS 환자를 太陰人 胃脘寒證으로 진단하여 調胃升清湯을 26일간 투여 하여 설사 회수가 2-3회에서 1회로 호전되었고, 대변양상도 설사에서 무른변으로 변하였고, 후중감도 VAS 5에서 VAS 3으로 감소하였다. 서 등⁹의 논문에서는 보통, 설사 증상의 太陰人 위암환자에게 太陰調胃湯에 저근피 6g을 가한 처방을 10일간 투여하여 초기 1일 4-5회 수양성 설사를 하다가 1일 후 3회로 줄어들었고, 이어 묽은 변을 소량 보게 되었다. 김 등¹⁰의 논문에서는 설사, 불면, 상열감을 호소하는 少陰人 화병환자에게 十二味寬中湯을 10일, 香附子八物湯을 4일간 투여하여, 설사증상의 완화를 보였다. 김 등¹¹의 논문에서는 만성설사를 주소로 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少陽人 환자를 脾受寒表寒病 亡陰證 증 身寒腹痛泄瀉로 판단하고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였다. 병의 경과 중 초기에 설사 후 전신소력감, 수족진전, 항강 등을 호소하였고, 胃苓湯을 투여하였을 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荊防地黃湯을 투여하고부터 설사가 그치고, 설사로 인한 동반증상도 호전되었다고 한다. 박 등¹²의 논문에서는 설사를 주소증으로 한 少陽人 亡陰證 환자에게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여 대변 횟수가 1일 5-6회에서 정상변으로 까지 호전되었으며, 腹診시 중원부위의 압통 호전 되

Table. 7. The Case Reports of the Patients with the Diarrhea as a Main and Accessory Symptoms treated with Sasa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s

The Lead author (the year)	Patient	Intervention	효과
Shin HS ⁸ (2012)	Taeum-in Esophagus Cold Pattern Patients with GERD and IBS.	兩義供辰丹, 熱多寒少湯, 調胃升清湯, 遠志石菖蒲散	Condition:watery feces -> loose feces -> normal hardness feces number : 2-3 times/1day->1 time/1 day The feeling after defecation: heavy->fresh
Seo YK ⁹ (2007)	Stomach Cancer Patient with Peritoneum and Colon Metastasis and Abdominal Pain and Diarrhea.	太陰調胃湯	The feces conditions are getting better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he and Quality of life
Kim YW ¹⁰ (2005)	Soeum-in Hwabyung with Insomnia, Diarrhea and Flaring Up.	藿香正氣散, 十二味寬中湯, 香附子八物湯	Improvement of Diarrhea, Abdominal pain and Quality of life
Kim KS ¹¹ (2001)	Soyang-in patient of chronic diarrhea(IBS).	荊防地黃湯	Improvement of the clinical symptoms
Park HS ¹² (2002)	The Soyang-in patient of Mangeum-disease.	荊防地黃湯	The normalization from watery feces to normal hardness feces
Lee SC ¹³ (2001)	The Soyang-in patient of Mangeum-disease.	荊防地黃湯	The normalization of the condition of feces and defecation number

었고, 설사와 동반 증상인 복통과 복명증상도 호전되었다. 이 등¹³의 논문에서는 설사를 주소증으로 한 少陽人 亡陰證 환자에게 荊防地黃湯을 투여하여 초기 대변이 묽어 쉽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가 묽은 정도가 점점 호전 되다가 결국 정상 굳기의 대변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다 (Table 7).

IV. 考 察

문헌검색을 통해서 각 체질별로 설사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살펴봤으며, 그 처방이 속해있는 병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해당 병증의 表裏, 順逆, 寒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체질별 설사의 원인·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최종본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의 처방·병증 분류를 참고하여, 『東醫四象新編』 및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武遺稿』의 설사 처방을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분류로 다시 분류하여 처방 활용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분류를 기준으로 太陰人은 表病, 裏病 모두에서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 少陰人은 裏病에서 설사가 나타나며, 少陽人은 表病에서 설사가 나타난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太陰人 설사는 表病에서 溫病의 경과 중 하나로 나타난다. 설사 증상에 모두 같은 처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설사 증상이 있더라도 동반 증상에 따라 熱증상이 동반되면 葛根解肌湯을 쓰고, 寒증상이 동반되면 太陰調胃湯加升麻, 黃芩을 쓴다. 또한 熱이 勝한 것은 裏病이라 하였고, 寒이 勝한 것은 表病이라 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表病 설사에는 太陰調胃湯을 적용할 수 있고, 裏病설사에는 葛根解肌湯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太陰人에서 설사 증상이 있다면, 먼저 表, 裏 즉, 寒, 熱을 구분을 하여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太陰人 설사에서 表寒證 설사에 太陰調胃湯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表熱證에는 葛根解肌湯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表熱證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그리고 太陰人에 있어 『東醫四象新編』 「用藥彙分外篇」을 살펴보면, 辛丑本과 같은 맥락으로 熱證의 의미가 있는 暑泄에 葛根解肌湯을 적용하며, 寒證의 의미가 있는 虛證 설사에는 太陰調胃湯을 적용하였다. 그밖에 腎泄에는 太陰調胃湯과 비슷한 계열인 腎氣調胃湯을 사용하였다. 또한, 太陰調胃湯 계열의 처방이 적용될 때 淸心蓮子湯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열증성 설사인 暑泄에는 葛根解肌湯 뿐 아니라 熱多寒少湯도 쓰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東醫四象新編』에서 葛根解肌湯, 太陰調胃湯, 太陰調胃湯 계열의 腎氣調胃湯의 쓰임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과 비교하여 볼 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熱多寒少湯을 열증을 동반한 설사에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新編劑方」에서의 太陰人 설사처방은 太陰調胃湯 계열인 固氣調胃湯 및 薏苡仁調胃湯, 淸心蓮子湯, 淸心山藥湯이 쓰였는데, 固氣調胃湯, 薏苡仁調胃湯은 일반적 설사, 淸心蓮子湯, 淸心山藥湯은 주로 虛證으로 인한 夢泄을 동반한 설사, 葛根解肌湯은 咽痛, 面赤, 身熱 등의 열증을 동반한 설사에 쓰이고, 중독으로 인한 설사증상엔 麝香散을 제시하여 앞서 살펴본 太陰人 설사 처방들처럼, 寒, 熱, 虛勞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중독을 원인으로 한 설사 처방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는 太陰人 설사처방인 淸升葛根湯은 처방에 대한 뚜렷한 관이 없으며, 寒, 熱, 虛勞, 중독 등 어느 원인에든 적용할 수 없는 처방이 된다. 아직 처방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처방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기 전의 처방을

설사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淸心山藥湯은 앞서 언급했던 太陰人 설사 원인 중 虛勞 夢泄을 동반한 설사 증상에 대한 처방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太陰人 설사 처방에 추가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表病 溫病 과정 중 身熱腹痛泄瀉에 桔梗生脈散 및 黃栗栲根皮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기처방을 임상에서 太陰人 熱證 설사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武遺稿』의 定神瀉肝湯은 熱多寒少湯에 龍骨을 가한 처방으로 熱證 설사 및 虛勞 설사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이며, 麥門冬湯은 熱證 설사에 사용한 처방으로 太陰人 설사에 응용할 수 있다.

少陰人은 裏病篇에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즉, 太陰證과 少陰證에서 설사가 나타나는데, 太陰證은 順證이 되며, 少陰證은 逆證이 된다. 太陰證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을 쓰고, 少陰證에는 官桂附子理中湯이 쓰여, 太陰證 처방의 효과는 溫胃, 降陰 하는 것이고, 少陰證 처방은 胃뿐 아니라 脾까지 약해진 상황을 조절하여 降陰시켜 준다.

『東醫四象新編』 「用藥彙分外篇」에서 少陰人 설사에 대한 원인을 暑, 虛, 滯, 腎泄 등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즉, 暑泄에서도 太陰證 처방인 白何烏理中湯과 少陰證 처방인 白何烏附子理中湯이 모두 쓰이고 있었다. 虛泄에도 太陰證 처방인 白何烏理中湯과 少陰證 처방인 白何烏附子理中湯, 人蔘附子理中湯이 혼재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暑泄, 虛泄에서 모두 같은 처방이 언급되고 있어, 少陰人 처방에서는 用藥彙分外篇式으로 설사를 暑, 虛, 滯, 腎泄 등으로 나눈 것은 설사 처방을 명확하게 하기에 한계가 보이는 분류로 보인다.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新編劑方」에서 少陰人 설사에 대한 처방으로 太陰證 처방인 香砂

養胃湯, 三白理中湯, 薑朮破積湯, 香砂理中湯과 소아 慢驚風에 쓰이는 獨參良朋湯이 나타나 있어 주로 太陰證 위주의 처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辛丑本에 나와 있지 않은 三白理中湯, 香砂理中湯, 薑朮破積湯을 少陰人 太陰證 설사일 경우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아 慢驚風에 獨參良朋湯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에서는 四君子湯이 나와 증치방과 이름은 같지만 그 구성은 『辛丑本』에서 太陰證과 少陰證에 적용하였던 약물로 주로 구성된 처방을 적용하고 있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의 四君子湯 또한 太陰證과 少陰證의 경계가 애매한 설사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도 裏病에서만 설사 증상이 언급되어 있으며, 太陰證과 少陰證에 대한 구분이 있었고, 太陰證에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少陰證에 芎歸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도 少陰人 慢驚風에 獨參良朋湯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少陰證에 적용한 처방들을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부유방으로 남은 芎歸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또한 설사 처방으로 응용 가능할 것이다.

少陽人의 설사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表病에서만 설사 주치증이 언급되어 있고, 해당 병증은 亡陰證이다. 亡陰證은 順逆 중 逆證에 해당하는 것이다.

亡陰證 중 설사 증상과 동반된 증상이 身熱頭痛일 때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적용하고, 身寒腹痛일 경우에는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東醫四象新編』 「用藥彙分外篇」에서는 원인에 따라 猪苓車前子湯, 牡丹皮地黃湯이 따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東醫四象新編』 「用藥彙分外篇」에 나와 있는 원인에 의한 처방구분은 少陽人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新編劑方」에서는 亡陰證 처방인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 荊防地黃湯, 滑石苦參湯이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의 적응증과 유사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辛丑本의 中消처방인 忍冬藤地骨皮湯도 설사 처방으로 제시하였고, 그 밖에 체열설사에 地黃玄武湯을, 身寒腹痛泄瀉에 柴胡四苓散을 적용하여, 적용방식은 辛丑本과 유사하며 구성 처방도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荊防地黃湯 및 猪苓車前子湯과 유사한 면이 있어 忍冬藤地骨皮湯, 地黃玄武湯, 柴胡四苓散도 설사 처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는 少陽人 처방의 기원이 되는 처방인 五苓散이 설사 처방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구성이 『傷寒論』의 처방 구성에서 白朮, 肉桂가 빠지고 少陽人 약물인 滑石, 柴胡가 더하여진 처방으로 少陽人 설사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表病편의 腹痛泄瀉證에서 柴胡四苓散과 八味苦參湯이 설사처방으로 제시되었다. 柴胡四苓散은 猪苓車前子湯의 기원 처방이 되고, 八味苦參湯은 滑石苦參湯의 기원 처방으로 임상적으로 少陽人 설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의학에서 설사에 대한 언급에서 太陰人편에서는 表病, 裏病에서 모두 나오며 表病은 逆證에서, 裏病은 順證에서 언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陰人에게서 설사는 表, 裏 내지는 順, 逆의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太陰人 자체가 氣液之氣病證을 가진 체질로 肺黨의 呼散之氣가 원활하게 작용하여 땀이 잘 배출되면 건강한 상태로 보지만, 만약 肺黨의 기능이 떨어져 肝의 吸取之氣가 과하게 작용하게 되면 땀은 줄어들고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되며, 夢泄증상까지 이어지고, 설사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太陰人에서는 寒, 熱이라는 상반된 원인에서도 모두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 太陰人의 설사는 기본적인

吸取之氣와 呼散之氣의 세력차이에 따라 나타나며, 寒, 熱, 表, 裏 구분에 따라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少陰人篇에서는 裏病에서 설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된다. 裏病 중 順逆을 막론하고 설사증상이 언급되고 있다. 裏病은 少陰人의 타고난 장국대소로 인해 약해진 胃中溫氣가 寒邪의 꺾박을 받아 대장으로 하강하지 못하고 大腸寒氣가 더욱 치성해진 상황이다. 少陰證은 胃中溫氣가 太陰證에서보다도 더욱 줄어들어 脾陽까지 쇠약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少陰人에서 表病은 열증으로 나타나고, 裏病은 한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통점은 少陰人에서 表病, 裏病 모두 腎大 脾小함으로 인한 대장국의 寒邪가 치성하여 생기는 병증인 것이다. 그런데 한증의 증상이 명확하고, 열증조차 나타나지 않은 裏病에서 설사증상이 더욱 직접적이고,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少陰人에서는 寒氣를 설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少陰人 설사의 가장 큰 원인은 寒이 되며, 順逆을 막론하고 한증으로 인해 설사가 나타나게 되며, 少陰人 설사에서는 이 치성한 寒氣를 다스리는 것이 치료에 가장 큰 요점이 된다.

少陽人篇에서는 表病篇에 설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表病 중에서도 逆證 亡陰證에서 설사 증상이 나오게 된다. 少陽人에서 설사는 逆證으로 위중한 증상이 되는 것이다. 少陽人에서 亡陰證은 타고난 장국대소로 인하여 치성해진 脾局熱邪로 인하여 脾局陰氣가 腎局陰氣로의 연접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대장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다.

少陽人에서 大腸의 기능이 왕성하면 寒氣의 생성도 많을 것이고, 大腸의 기능이 손상되면 寒氣의 생성도 적어질 것이다. 또한 대장기능의 저하로 寒氣가 液海가 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분별청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液海로 물질화 되는 작용도 제대로 되지 않아 泄瀉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陽人 설사는 表裏證의 경향성으로 보기 어렵고, 대장 기능 저하로 液海의 물질화 되는

과정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설사의 원인이 될 것이며, 대장국의 기능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치료의 요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설사가 나타날 경우 동반 증상이 身寒腹痛, 身熱頭痛인지에 따라서는 처방이 조금 달라지게 되나, 설사증상이 언급된 亡陰證 처방모두 궁극적으로는 대장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처방이 되는 것이다.

임상논문에 있어 설사에 대한 자료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분석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조사한 설사 관련 임상논문에 따르면 少陽人は 대부분 亡陰證 처방 중에서도 荊防地黃湯을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少陰人과 少陽人の 경우 문헌 고찰에서처럼 少陰人 裏病 처방 및 少陽人 亡陰證 처방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太陰人の 경우는 胃脘寒證 처방이 주로 쓰였고, 表熱證이나 肝熱證 처방을 사용하여 설사를 치료한 논문은 없었다.

이번 연구는 설사를 주치로 하는 처방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을 통하여 사상의학의 임상적 접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였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이전의 東醫壽世保元 서적들 및 『東武遺稿』, 『東醫四象新編』 등의 처방도 임상적으로는 효과를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처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사상처방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이외의 처방들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치증에 설사가 언급된 처방만 선택하여, 이로 인해 설사증상이 언급 되지 않았지만, 병리상에서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처방이 누락되었고, 설사 증상에 대한 치험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것이 한계로 남지만, 우선 이번 연구는 가이드라인 연구의 1차적 연구가 될 것이고,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처방 각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처방 설사 처방 각각에 대한 분석, 또 유사처방간의 비교 분석 등을 하여 처방을 사용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사상의학에서의 설사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太陰人の 설사증상에는 寒, 熱, 虛勞, 중독 중 어떤 설사인지 변별을 하고, 寒이라면 太陰調胃湯, 李氏調胃湯, 腎氣調胃湯, 固氣調胃湯, 薏苡仁調胃湯, 補肺元湯을 적용하고, 熱이라면 熱多寒少湯, 葛根解肌湯, 桔梗生脈散, 黃栗櫛根皮湯, 定神瀉肝湯, 麥門冬湯을 적용하고, 虛勞로 인한 설사라면 清心蓮子湯, 清心山藥湯, 定神瀉肝湯을 적용하고, 중독으로 인한 설사일 경우에 麝香散을 적용한다.
2. 少陰人 설사 증상은 太陰證 및 少陰證으로 보고, 太陰證, 少陰證을 변별하여 十二味寬中湯, 三味蓼萸湯, 香砂養胃湯, 藿香正氣散, 白何烏理中湯, 薑朮破積湯, 香砂理中湯, 三白理中湯, (草本卷)四君子湯,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人蔘附子理中湯, 獨參良朋湯을 사용한다.
3. 少陽人 설사 증상은 亡陰證으로 보고, 身熱頭痛, 身寒腹痛의 경증을 보고 身熱頭痛의 경증이 있다면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滑石苦參湯, 地黃玄武湯, 五苓散,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을 사용하고, 身寒腹痛의 경증이 있다면 牡丹皮地黃湯, 木通無憂湯, 忍冬藤地骨皮湯, 柴胡四苓散을 사용하여 대장의 寒氣생성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VI. 參 考 文 獻

1. Baek TH, Choi JR, Park SK.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12-119. (Korean)
2. Kim MG, Park SK. Comparis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of Soyangin's with Taumin's』 about Sweating and Pissing in the ShinChukbon 『Dongyi Suse Bow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37-43. (Korean)
3. Lee JC, Kim DL. The Study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ocus on Feces. J Sasang Constitut Med. 1992;4(1):171-177. (Korean)
4.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58-68. (Korean)
5. Choi JY, Lee YS, Park SS. The Characteristics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23(4):186-195. (Korean)
6. Moon SH. The Study about Relation for the Pathology, Pharmacology between Geung-chi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Edema. J Sasang Constitut Med. 1993;5(1):141-144. (Korean)
7.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e Constitutional Medicine Clinial Handbook II. Hanmimedecine. 1999.
8. Shin HS, Park BJ, Park YS, Kim JS, Lee EJ, Koh BH. A Case study of Taeumin Esophagus Cold Pattern Patients with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GERD) and Irritable Bowel Syndrome(IBS).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3):93-103. (Korean)
9. Seo YK, Kim EH, Kim DL, Koh BH, Cheon SH, Choi WC, et al. A Case of Stomach Cancer Patient with Peritoneum and Colon Metastasis Treated with Taeumjowi-tang for Abdominal Pain and Diarrhea.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270-276. (Korean)
10. Kim YW, Shin DY, Song JM. A case Report about the Treatments of Soeumin Hwabyung with Insomnia, Diarrhea and Flaring Up.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2):107-114. (Korean)
11. Kim KS, Lee SY, Kim JH, Kwon DI. A Clinical case study of irritable bowel syndrome patient with chronic diarrhea.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134-139. (Korean)
12. Park HS, Joo JC, Kim HS, Bae YC. A Case Study of the Shaoyangin Manyin Improved with Hyeongbangjiwha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120-124. (Korean)
13. Lee SG, Lee EJ, Koh BH, Song IB. Soyangin man-geum-disease case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151-154. (Korean)